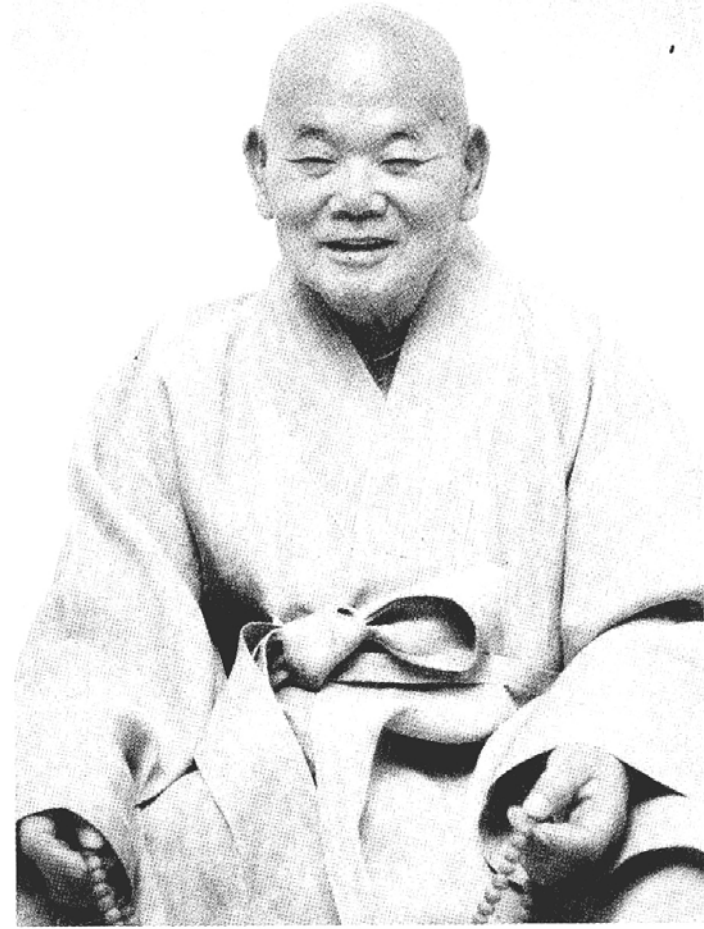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번뇌 근본 제거 못하면

도암스님 (대승종 종정)



- 1920년 경기 용인 생
1935년 법륜사에서 박대륜스님
을 은사로 출가
1938년 양주 봉선사에서 사미
계
1938년 철원 심원사 화산경원
수로
1939년 개운사에서 박한영스님
에게 구족계
1988년 대한불교 대승종 총중,
초대종정에 취임
· 현 서울 신당동 흥도사에
주석

세상 각박할수록 자비 필요
동체대비·사홍서원 뜻 잘 새겨
연화정토 일구어 잡시다

을 익혔어요. 그때 5원씩 봉금을 탔는데
공부하기 위해 모아두었다가 양주 봉선
사 불교전문강원에 가서 운허스님에게서
경학을 배웠지요. 금강산 유점사에 선지
식들이 많이 있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다시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점사는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80
여명의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를 지내
며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지요. 유점사
에서 같이 공부한 스님들이 덕암스님(현
태고총림 방장) 범홍스님(현 원효종 종
정) 능인스님 등이예요. 거기서 지내다
유점사 말사인 철원 심원사 화산경원(華

山經院)에서 사십과 사교과 대교과를 모
두 수료했습니다. 심원사에서는 노전 불
사님이 없어 노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김장같은 것을 하
면 무채를 아주 많이 써야 했는데 쌀
기가 지루하니 누가 잘 써느냐 내기를
했어요. 채를 썰어 도마를 탁 쳐서 그 채
가 천정에 가 가장 많이 붙는 사람이 1등
을 하는 그런 것인데 내가 2등 한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일반사회에서는 물론 절에서
조차 말을 함부로 하고 헛소리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강원에서

는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하계'
나 '해라'를 하지 않고 존대말을 했지요.
말부터 남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예절
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지요. 내복에서
공손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예절을 갖추
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회 전체가 예
절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예절바르
고 자비심 많은 사회가 되어야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고 인류가 화평합니다.
사람은 본래 청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
는데 그것이 무명에 휩싸여 드러나지 않
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정한 마음이 연
기의 이치에 의해 밖으로 발산되어 나타
나는 힘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자(慈)'
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悲)'
는 남의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지요.
요새, 사랑 사랑 하고 어디서나 사랑
타령을 하는데 불교의 자비는 일반적인
로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
랑이라는 단어 저변에는 다분히 이기적
인 일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
니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니원품(泥洹品) ②

持別動虛則淨 의족동허즉정
動非近非有樂 동비근비유락
樂無近爲得寂 락무근위득적
寂已寂已往來 적이적이왕래

의지하면 흔들리고 마음 비면 청정
하다
흔들림은 가까이 할 것 아니고 즐거
움도 아니다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적멸
에 들어
고요하고 고요하여 생사 길에 오고
감 없다.

來往無生死 래왕절무생사
生死無此彼 생사단무차피
此彼斷爲兩滅 차피단위양멸
滅無餘爲苦除 멸무여위고제

오고감 없으면 생사가 없고
생사길 끊어져 이승 저승 없으며
이승 저승 다 없어져
남음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다
比丘有世生 비구유세생

남이 있고 지음이 있는 자
그는 요체를 얻지 못하니
만약 이미 나지않는 이치 깨달았으
면
존재도 없고 지음도 없다

則生有得要 즉생유득요
從生有已起 종생유이기
作行致死生 작행치사생
爲開爲法果 위개위법과

태어났기에 요체 얻게되지만
그를 좇아 존재한다는 생각 일어나
면
행을 지어 생사에 이르나니
이는 제법의 과보를 얻어 보인 것

從食因緣有 종식인연유
從食致憂樂 종식치우락
而此要滅者 이차요멸자
無復念行亦 무부념행적
諸善法已盡 제고법이진
行滅滅然安 행멸담연안

먹어야 사는 존재라서 인연이 있고
먹는 것 따라 근심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어코 없애 버리면

의지하면 흔들리고 마음비면 청정
고요하면 생사길에 오고감 없다

有有有作行 유유유작행
有無生無有 유무생유유
無作無所行 무작무소행

비구가 몸 받아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존재한다 생각하면 짓는게
있으나
태어났다는 생각 없으면 존재도 없
는 것
마음에 지음 없으면 행한 바도 없으
리라

夫難無念者 부유부념자
爲能得自致 위능득자치
無生無復有 무생무부유
無作無所行 무작무소행

무릇 마음에 한 생각이 없는 자
능히 스스로 열반에 이르리니
남이 없으면 다시 존재함도 없고
짓는 것 없으면 다시 갈 곳도 없다

生有作行者 생유작행자
是爲不得要 시위부득요
若已解不生 약이해불생
不有不作行 불유불작행

다시는 행한 자취 돌이켜 생각하지
않으니
온갖 괴로움의 법 이미 다하고
행도 사라져 맑고 편안하다

比丘吾已知 비구우이지
無復諸入地 무부제입지
無有虛空入 무유허공입
無諸入用入 무제입용입

비구여, 내가 이미 알았거든
다시는 들어 갈 자리가 없을 터
허공에 들어감도 없고
쓰임에 들어감도 없다

無想不想入 무상불상입
無今世後世 무금세후세
亦無日月想 역무일월상
無往無所處 무왕무소현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생각 없음에
도 머물지 않으면
공생도 없고 후생도 없다
하루니 한달이니 하는 생각도 없고
가느니 매달려 있느니도 없다

龍眼

여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강령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아나 후라도 공저
김홍근 번역
86 변형 241쪽/ 값 5,500원

20C의 청조자, 환상 문학의 정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술탄 수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번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번역
86 변형 178쪽/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상제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확실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중서 지음
86 변형 182쪽/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실법',
'전상전하유이득존'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아말로
개인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